글로브박스용 EPDM 경도 변화에 따른 고무의 물성

<u>허광선</u>[†], 김봉수, 오도훈 경남정보대학교 (kwangsun@kit.ac.kr[†])

자동차 내부에 사용되는 실내 마감재는 지속적인 태양광 노출과 밀폐된 공간에서의 높은 온도 상승으로 인한 노화증가로 인하여 매우 높은 내 오존특성과 내후성이 요구 된다. EPDM은 자외선과 오존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20년 이상 초기 물성을 유지하는 뛰어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. 이러한 뛰어한 내 오존특성과 내후성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의 재료로써 자주 사용되고 있다. 본 실험에서는 EPDM고무의 촉진제의 농도를 다르게 사용하여, 촉진제의 농도가 EPDM고무의 경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았다. 또한, EPDM고무의 경도가 증가가 EPDM 신장율을 비롯한 여러 물성에 변화를 주는지도 확인하였다.